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활성화 연구*

A Study on Strategies to Promote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이 윤 정 (Yun-jeong Lee)**

김 유 승 (Youseung Kim)***

초 록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유형을 분석하고, 현장 전문가 10인의 심층 면담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요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의사소통 및 접근성', '전문 인력 및 예산', '참여자 인식 및 이해' 등이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문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서비스 예산 기준 마련', '수어 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전문 인력의 배치 제도화',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정기화'를 주장하고, 서비스 측면의 개선방안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수어 기반 시청각 교보재 개발', '수어영상도서의 접근성 확대', '보호자 신뢰 형성', '참여 주체 간 협력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ays to revitalize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To this end,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deaf children and the types of reading culture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for deaf children, and derived problems in the program operation and demands for improvement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10 field experts. Through this, it confirmed that 'communication and accessibility',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and budget', and 'lack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program participants' are major problem factors in the operation of reading culture programs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s. As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 it insisted on 'preparing budget standards for services for the disabled in public libraries', 'institutionalizing the placement of sign language interpreters and deaf professionals', and 'regularizing education for improving awareness of hearing impairments', and proposed 'designing customized programs', 'developing sign language-based audiovisual training aids', 'expanding access to sign language video books', 'building trust in guardians', and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among participants' as measures to improve the service aspect.

키워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장애인서비스, 청각장애, 청각장애아동

Public Libraries, Reading Culture Programs, Services for the Disabled, Deaf, Deaf Children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2025)을 축약·수정·보완한 것임.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qorleeyj97@cau.ac.kr)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5년 8월 4일 논문심사일자 : 202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자 : 2025년 8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6(3): 25-53, 2025.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5.36.3.025>

* Copyright © 2025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시작하는 글

공공도서관은 다양한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법」과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그 법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다. 현행 「도서관법」(법률 제19592호)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조치 수행을 도서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제7조). 또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정책과제로 선정된 독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장애 어린이·청소년 독서 역량 강화', '장애 유형별 서비스 및 독서 편의 강화'를 제시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하지만, 이와 같은 법령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여전히 미비하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부족하다. 국립장애인도서관(2022a, 91)의 '2021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서비스 중 시각장애인을 주요 이용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이 251개 관(97%)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반면, 청각장애인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하는 도서관 7개 관(3%)에 불과하다. 법령과 정책이 규정하는 지원이 특정 장애 유형으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비장애 아동은 읽기 활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음성과 청각을 통해 언어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지적, 언어적 기술을 빠르게 형성해 나간다. 하지만 청각장애 아동은 음성언어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워 일상 속 지식과 정보에 노출되는 경험 자체가 제한적이다. 청각장애인은 의사소통에 기반이 되는 언어 이해와 개념 파악에 있어 취약성을 동반하므로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가장 중증의 장

애 유형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국립중앙도서관, 2008, 9).

유네스코의 「공공도서관 선언」은 공공도서관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 사회의 문화센터”로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국제도서관연맹(IFLA)은 2024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지침(Guidelines for Making Librari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을 통해 모든 장애인이 정보와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장애 유형별 이용자 특성과 서비스 제공 원칙을 제시하였다. 특히, 청각장애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항목에서 정보 접근성과 문화 향유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IFLA, 2024). 첫째,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자료 설계에 있어 IFLA는 수어를 주언어로 사용하는 특성을 반영해야 함을 강조하고, 둘째, 수어영상도서 및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과 관련하여, 해당 자료가 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제한적 자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며, 셋째,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도서관의 책무성과 역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들도 독서에 국한되지 않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2020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국립장애인도서관, 2022b, 185)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청각장애 아동에게 도서관 친밀감을 높이고, 자발적 독서 흥미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청각장애 아동은 어휘력 부족과 복합문 이해의 어려움 등 문해력 측면에서 취약한 특성을 보이며 반복적, 시각적 언

어 자극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 맞춤형 대면 낭독, 수어 기반 동화 구현, 그림 중심의 독서 활동 등이 청각장애 아동의 문해력 향상의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송혜경, 2009, 78). 하지만, 앞서 국립장애인도서관(2022a)의 통계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청각장애인을 주 이용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더욱 부족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장이 아닌 학술영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각장애 아동의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에 관한 학술적 논의도 매우 소략하다. 그나마 관련 선행연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와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연구는 주로 거점도서관 모델, 정보 접근성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어 왔다. 강창욱 외(2012)는 도서관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청각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하였으며, 강창욱 외(2013)는 서울도서관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수화대면 낭독, 수화문자쓰기 등 다양한 수어 기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거점도서관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준우와 박종미(2009)는 청각장애인을 '정보취득의 의사소통 장애인'으로 정의하며 정보 접근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통 문제, 대체자료 부족, 담당자 인식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이들 연구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접근성 확대와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성인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는 한계가 있다.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 및 정서 발달, 문해력 향상, 독서 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초기연구로 최성규(2000)는 대체사고전략을 도입하여 청각장애 아동의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을 시각 중심의 교수전략으로 설명하였으며, 이규식과 권순황(2001)은 농문화 수용태도에 따라 언어 선호와 정체성 형성에 차이가 발생함을 분석하였다. 조형용 외(2005)는 시청각자료 중심의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청각장애 아동에게 적합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김정규(2008)는 수어를 활용한 구연동화 프로그램이 언어 발달의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결과를 제시하였다. 송혜경(2009)은 문법형태소 사용 교육을 통해 청각장애 아동의 문장 구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배형일과 최성규(2010)는 학령기 독서전략 및 부모와 교사의 지원이 아동의 장기적 독서 능력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홍주원(2016)은 독서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 교육이 공감능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연구성과들은 공통적으로 청각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법을 탐색하고, 언어와 정서적 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교육기관 중심의 실험 연구, 또는 서비스 모델 제시에 국한된 경향이 강하며, 공공도서관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구체화한 연구는 드물다. 특히, 청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학술적, 실천적 영역 모두에서 수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논의와 사례의 축적조차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과 독서 활동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는 이론 연구와, 10인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면담연구를 통해 도출된 운영상 문제와 요구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행 가능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문화적 특성

청각장애는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청각의 기능 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로, 그 유형과 손상 시기, 심각도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 청각장애 아동은 청력 손실로 인해 언어 습득과 의사소통에 제한이 따르며 이는 인지, 언어, 사회, 정서 등 전 발달의 복합적 영향을 미친다(김미옥, 이미선, 2013, 15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4호) [별표1]에 따르면,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는 80dB 이상, 다른 귀는 40dB 이상인 경우, 또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84호) [별표]는 보청기를 착용하더라도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 또는 보청기를 통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교육적 성취에 중대한 제한을 겪는 경우를 청각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청각장애는 일반적으로 농(聾)과 난청(難聽)

으로 분류된다. 농은 청력 손실 정도가 심각하여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난청은 어느 정도 청각 정보의 수용이 가능하나 언어 이해와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로 정의된다(이미숙 외, 2016, 166). 이러한 분류는 아동의 교육적 지원 방향과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상의 정의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을 인지적, 언어적,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지적 특징이다. 청각장애 아동은 정보 처리 방식과 인지 발달에 있어서 일반 아동과 구별되는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시각적 자극을 중심으로 환경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며, 소리 기반 정보의 수용이 어려워 청각 중심 사회에서 즉각적인 정보 반응이나 상황 판단이 지연될 수 있다(김승환 외, 2016, 3). 또한, 인공와우나 보청기 등 청각 보조 기기를 통해 소리를 인지하더라도 어휘 사용과 문해 이해 등 언어 처리에서 제한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박상희, 권영주, 2003, 258). 청각장애 아동은 수어의 시공간적 언어 특성으로 인해 음운 부호화 과정에서 높은 인지적 부담을 겪으며 작업기억 용량이 제한된다. 이는 복잡하거나 긴 문장, 순차적 정보 처리에 어려움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이광열 외, 2006, 343).

인공와우 착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청각 수용 자체는 개선되었지만, 작업기억과 문장 이해력에서 제한이 지속됨을 확인했다(박소현, 방정화, 2011, 47). 이러한 특성은 단순한 청력 보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청각장애 아동의 인지 특성을 고려한 반복적 노출, 시각 중심 자극, 구조화된 언어활동 설계가 병

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처럼 청각장애 아동은 시각 중심의 정보 처리 방식, 제한된 언어 경험, 낮은 문해력 등으로 인해 문장인지 기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이들의 인지 특성을 고려해 시각적 자극 중심의 활동 구성, 반복적 언어 노출, 단계적 문장 구조 이해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박소현, 방정화, 2011, 41).

둘째, 언어적 특징이다. 청각장애 아동은 문해력 형성과 언어 표현 능력의 제약으로 인한 언어적 특성을 보인다. 박상희와 권영주(2003, 258)는 청각장애 아동의 청능 발달이 구어 인지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어휘 사용과 문법 형태소 발달에는 제한이 있으며, 비장애 아동과 비교해 언어발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였다. 문해력 수준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난다. 이준우와 김연신(2011b, 178)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장애 성인의 평균 문해력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26.93점으로 비장애 성인의 63.6점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비문해율 또한 비장애 성인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는 아동기부터 언어 기반 학습에의 지속적 개입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청각장애 아동은 어휘 지식의 양적 부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와 맥락적 활용에 익숙하지 않아 단어의 표면적 의미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이지아, 최소영, 2017, 393), 독서 활동에서 의미 이해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Moore(2006, 46)는 청각장애 아동이 구어 기반 언어에 노출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읽기 능력 발달 경로가 일반 아동과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사회·정서적 특징이다. 청각장애 아

동은 의사소통의 제약으로 인해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사회적 참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정서적 특성을 보인다.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 위축된 자기표현, 타인의 감정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이어지며, 의사소통 실패 경험이 반복될 경우 사회적 고립감과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김자경 외, 2011, 143).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로 인해 자연음, 환경음, 사람의 말소리를 직접 인지할 수 없으며, 특별한 조치 없이는 음성언어의 자연스러운 습득이 어렵다. 따라서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이 지체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준우, 이현아, 2017, 154). 의사소통의 제약은 일상생활 속 타인과의 관계 형성, 사회적 서비스 접근 등에서도 불편을 유발하며, 사회적 관계 구축의 장벽이 되기도 한다. 이는 결국 사회 각 영역에서 청각장애인을 분리시키는 구조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이준우, 김연신, 2011a, 147-148; 이준우, 이현아, 2017, 154).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각장애 아동은 성장 환경과 언어 방식의 수용 여부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다. 수어를 사용하는 문화적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자긍심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체성은 단순한 언어 방식의 차이를 넘어선 문화적 기반이 된다. 이처럼 청각장애인은 '농문화(deaf culture)'라는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통해 공동체적 유대를 경험하고, 자신을 장애인이 아닌 언어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게 된다(고은, 2017, 170).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청각장

에 특성을 인지적, 언어적,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각각 정보처리와 기억력의 부담, 제한된 언어 노출에 따른 문해력 저하, 그리고 의사소통 제약에서 비롯된 사회적 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복지법」(법률 제19555호)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20446호)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법률 제20953호)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청소년으로, 「영유아보육법」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영유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범주를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0566호) 상의 중등교육 대상자를 제외한 7세부터 12세까지의 어린이로 규정하고자 한다.

2.2 청각장애 아동 독서의 특성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를 보장하는 공간으로, 정보소외계층의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핵심 공공 기반으로 기능한다(김관준, 2022, 52; 이수상 외, 2024, 30).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 중심 사회에서 정보 획득과 의사소통에 구조적 제약을 겪으며, 도서관 이용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이용률은 낮다(강창욱 외, 2012, 2). 이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와 서비스 환경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기반 정보제공,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실질적 문화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도서관의 공적 책무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으로 규정한 「독서문화진흥법」(법률 제19794호)을 바탕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독서와 관련된 표현, 창작, 체험 등의 요소를 포함하는 통합형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은 도서관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독서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용어와 포괄적으로 호응하며,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과 정보 수용 방식을 고려한 시청각 중심의 독서활동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범주로 설정한다.

조형용 외(2005, 3)는 청각장애 아동은 수용언어의 부족으로 인해 어휘력과 이해력 측면에서 제약이 따르며, 그로 인해 독서에 대한 흥미가 낮고, 자기 주도적 독서 습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며, 이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언어·인지적 발달을 함께 고려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강창욱 외(2013, 244-245)는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둘째, 운영 중 청각장애인의 반응을 반영하며, 셋째, 기존 일반 프로그램과의 접목 가능성을 모색하고, 넷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다섯째, 연구 및 운영 과정 전반에 청각장애인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5가지 원칙은 문화적 소외를 방지하는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독서문

화프로그램은 발달 단계별 요구, 언어 체계의 차이, 사회적 소통의 제약 등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문화서비스로 설계되어야 한다.

3. 면담연구

3.1 연구설계

다음에서는 면담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아동 대상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고찰하고자 한다. 면담참여자는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서 2명, 특수교사 2명, 복지사 2명, 특수학교 도서관 사서 1명, 강사 1명, 수어 통역사 1명, 농통역사 1명을 포함한 총 10인으로 선정하였다. 협업이 필수인 프로그램 운영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하는 공공도서관 사서 및 복지사,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전문가인 특수교사,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을 대변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수어 통역사 및 농통역사 등을 면담참여자로 선정하여 면담 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2025년 3월 9일부터 3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하였다. 면담은 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부득이하게 대면 면담이 어려운 면담참여자에게는 대면 면담 시 사용했던 질문지를 전달하여 서면으로 대체하였다. 면담 내용은 면담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을 진행하였다. 각 면담은 최대 90분, 최소 40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소요 시간은 약 65분이었다(〈표 1〉 참조).

청각장애 아동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인식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문제점, 개선점으로 나누어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문헌정보학 연구자 1인과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 1명에게 자문받아 일부 수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용어가 부정확한 항목을 수정하고, 중복성 질문을 삭제하였으며, 면담 이전에 면담참여자들

〈표 1〉 면담 현황

면담참여자	직업	경력	면담 방법	면담일	면담시간
A	사서	7년	대면	2025년 3월 12일	40분
B	사서	5년	대면	2025년 3월 24일	65분
C	특수교사	30년	대면	2025년 3월 18일	55분
D	특수교사	27년	대면	2025년 3월 22일	80분
E	특수학교 사서	8년	대면	2025년 3월 17일	80분
F	사회복지사	2년	대면	2025년 3월 13일	45분
G	사회복지사	20년	대면	2025년 3월 13일	65분
H	수어 통역사	20년	대면	2025년 3월 9일	90분
I	농통역사	16년	서면	2025년 3월 17일	-
J	강사	13년	대면	2025년 3월 12일	70분

에게 연구 목적을 공유하고 면담 질문지를 배포하여 면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면담 분석

면담 분석을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 NVivo 15를 활용하였다. 비구조화된 면담 자료를 전사한 후, 코딩 과정을 수행하였다. 1차 코딩 과정에서 면담 전사 자료를 분석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사한 의미 문장으로 정리하고, 정리된 문장을 ‘인식’, ‘문제점’, ‘개선점’의 세 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코딩에서는 1차 코딩에서 구성한 영역을 범주로 분류하고, 3차 코딩에서는 범주를 다시 키워드로 세분화하였다. <표 2>는 영역별 범주와 코드 빈도를 정리한 것이다.

인식 영역은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필요성’, ‘청각장애 아동 접근법’, ‘청각장애 아

동 특수성 이해’로 범주화하였으며, 코드 빈도는 63개로 전체 답변의 30.6%로 나타났다. 문제점 영역은 ‘의사소통 및 접근성’, ‘전문 인력 및 예산’, ‘참여자의 인식 및 이해’로 범주화하였으며, 코드 빈도는 90개로 전체 답변의 가장 큰 비중인 43.7%를 차지했다. 개선점 영역은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전문가 양성 및 담당자 교육’,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 ‘기관 간 협력 강화’로 범주화하였다. 개선점 영역의 코드 빈도는 53개로 전체 답변의 25.7%였다.

3.2.1 인식 영역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 1)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필요성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필요성’ 범주의 키워드로 ‘독서습관 형성’, ‘문해력 향상’,

<표 2> 영역에 따른 코딩 빈도

영역	범주	코드 빈도	백분율
인식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필요성(42), 청각장애 아동 접근법(10), 청각장애 아동 특수성 이해(11)	63	30.6
문제점	의사소통 및 접근성(49), 전문 인력 및 예산(22), 참여자 인식 및 이해(19)	90	43.7
개선점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10), 전문가 양성 및 담당자 교육(23),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6), 기관 간 협력 강화(14)	53	25.7
합계		206	100

() 코드 빈도

<표 3> 인식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

범주	키워드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필요성	독서 습관 형성, 문해력 향상, 사회적 상호작용
청각장애 아동 접근법	간접 경험, 책에 대한 즐거움
청각장애 아동 특수성 이해	수어와 한국어 문법 차이, 상상력과 추론, 듣는 경험의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이 도출되었다. 첫째,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 아동들이 조기에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언어환경이 제한적인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의도적인 독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비장애 아동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 언어능력을 키우지만, 청각장애 아동들은 이러한 기회가 적습니다. (...) 독서 습관이 어릴 때부터 형성된다면 이후 성장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면담참여자 B)

둘째, 청각장애 아동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면담참여자에게 의해 거듭 언급되었다. 전반적인 어휘력과 문해력이 낮은 청각장애 아동에게 책은 진입장벽이 크다. 문해력 자체가 독서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담참여자 C). 이에 따라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적 지원으로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면담참여자 D).

셋째, 면담참여자들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순히 독서능력 향상에 국한되지 않고, 아동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또래와의 소통 경험 이 부족한 청각장애 아동에게 중요한 기능이라고 주장하였다(면담참여자 F, E).

2) 청각장애 아동 접근법

‘청각장애 아동 접근법’ 범주의 키워드로는 ‘간접 경험’과 ‘책에 대한 즐거움’이 도출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비장애 아동보다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체험할 기회가 제한적인 청각장애 아동에게 책을 매개로 한 간접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면담참여자 B, J). 청각장애 아동에게 책이 지식 전달의 도구를 넘어, 감정 표현, 상황 이해, 사회적 역할 등 여러 영역의 학습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H).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책을 어렵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독서 경험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면 독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이야기하였다.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제공하는 정서적 매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면담참여자 E, C).

3) 청각장애 아동 특수성 이해

‘청각장애 아동 특수성 이해’ 범주의 키워드는 ‘수어와 한국어 문법의 차이’, ‘상상력과 추론’, ‘듣는 경험의 부족’이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은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어와 한국어는 문법 체계, 어순, 표현 방식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언어 구조의 차이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읽기 활동은 단순한 문자 해독이 아닌 두 언어 간의 해석과 전환을 요구하는 복합적 인지 과정을 요구하며, 이는 독서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 수어라는 고유 언어를 쓰는 청각장애 아동들은 말과 글로 이루어지는 독서 활동에 언어적 장벽을 느낀다는 것이었다(면담자 E).

“비장애인들에게는 한글이 모국어지만 청각장애인 아이들에게 수어가 모국어예요. 수어도 깊

게 들어가 보면 나름의 문법 체계와 구문 규칙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사’ 같은 한국어 요소가 참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낯설고 헷갈리는 문장 구조에 당황하는 것처럼요.” (면담참여자 G)

둘째,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청각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언어적 중재가 포함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이 상징적 표현이나 추상적 내용의 이해에 어려움을 겪으며, 독서 활동에서 인지적 제약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청각장애 학생들은 두 언어를 모두 알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 그런 부분에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은 단지 그날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으로 가져가서 또 읽고, 다시 곱씹어보고, 그렇게 해야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면담참여자 H)

셋째, 청각장애 아동들은 일상에서 소리를 듣는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한다. 이는 단지 듣는데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읽기, 쓰기 등 전반적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면담참여자들

은 청각장애 아동이 간접적으로 책의 언어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면담참여자 A, D, F).

3.2.2 문제점 영역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문제점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1) 의사소통 및 접근성

‘의사소통 및 접근성’ 범주의 키워드는 ‘프로그램 접근성의 물리적 한계’,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혼란’, ‘착석구조 및 통역사 배치’이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에 있어 가장 큰 제약으로 ‘물리적 접근성’ 문제가 지적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 아동이 통합 학습에 분산되어 있어 “한날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했고(면담참여자 I), “장소나 시간이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였다(면담참여자 F). 수도권이나 특정 기관에 프로그램이 집중되면서 지방 거주 아동은 정보 접근의 기회조차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여러 가지 지원되는 곳이 없어 멀리 떨어진 국립장애인도서관까지 찾아가게 되지만, 자주

<표 4> 문제점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

범주	키워드
의사소통 및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의 물리적(교통, 장소, 시간) 한계, 의사소통과 정보 전달의 혼란, 착석구조 및 통역사 배치
전문 인력 및 예산	전문·경험 인력의 부족, 교육·양성 체계의 한계, 통역사에 대한 낮은 이해, 전문 인력비 부담, 대체자료 제작 예산, 공공도서관 예산
참여자의 인식 및 이해	교사 및 부모의 의지에 따른 참여, 장애 인식 부족, 순환근무제

찾아갈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청각장애인 이용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면담참여자 I)

이와 함께, 디지털 자료 접근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수어영상도서는 접근 절차가 복잡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가 접근할 수 없어 정보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며, 이용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수어 영상 도서를 이용하려면 국립장애인도서관에 로그인하여 접속해야 하는데, 장애인 당사자만 접근이 가능해요. (...) 기관에서는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면담참여자 E)

둘째, 면담참여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란을 언급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은 수어, 구화, 필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며, 인공와우 수술 여부나 농문화 경험의 유무에 따라 소통 능력과 선호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소통의 다양성은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세심한 중재 전략을 요구하며, 운영 현장에서는 정보전달 과정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청각장애인 안에서도 소통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 중복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 있어서 하나로 묶어서 접근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면담참여자 E)

복수의 소통 방식이 동시에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강사, 통역사, 아동 간의 정보 흐름이 분산

되고, 그 결과 몰입도와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면담참여자 C). 수어, 음성, 문자 정보가 혼합되어 제공될 때 정보의 분산이 심화되며, 이를 모두 시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청각장애 아동에게는 과도한 인지 부담이 발생한다고 했다(면담참여자 E, C). 이러한 소통의 어려움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이해도뿐만 아니라, 참여 만족도와 반복 참여 의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통역의 한계로 인해 강사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잦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공간에 수어 사용하는 학생들과 구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함께 있다 보니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 수어 통역사분의 의도대로 온전하게 전달되기는 어렵다는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면담참여자 J)

일부 기관에서는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자막을 크게 표시하는 등의 의사소통 보조 전략을 도입하기도 하였다(면담참여자 B). 그러나 많은 도서관에서는 여전히 청각장애 아동의 소통 특성과 언어 배경에 대한 사전 이해가 부족하며, 통역사 배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다층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면담참여자 D, C).

셋째, 면담참여자들은 모든 언어 정보를 시각적으로 수용하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통역사의 배치와 착석 구조가 정보 이해와 몰입도의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야기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현장에서 시선 흐름이나 시야 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정보 단절과 집중력 저하가 발생하는 일이 잦고(면담참여자 H), 통역사가 강사와 시야 범위 내에 함께 위치하지 않거나, 전달 내용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동시 설명이 이루어져, 아동이 시선을 반복적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정보를 놓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이야기하였다(면담참여자 D). 착석 구조 역시 비장애 아동에 적용되는 일자형 배치가 일반적이다 보니, 청각장애 아동이 강사의 입모양, 표정, 시각 자료 등을 한눈에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담참여자 H). 참여 인원수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면담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참여 아동이 많아질수록 통역이나 상호작용의 누락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른 정보 전달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면담참여자 C).

2) 전문 인력 및 예산

‘전문 인력 및 예산’ 범주의 키워드는 ‘전문·경험 인력의 부족’, ‘교육·양성 체계의 한계’, ‘통역사에 대한 낮은 이해’, ‘전문 인력비 부담’, ‘대체자료 제작 예산’, ‘공공도서관 예산’이다. 첫째,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과 발달 단계에 대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같은 청각장애인이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인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면담참여자 F)

일부 도서관에서는 청각장애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담당자가 프로그램 목적과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었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과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다수의 도서관 담당자들을 만났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면담참여자도 있었다(면담참여자 J).

둘째, 교육·양성체계의 문제다. 청각장애 아동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수어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이 필수적이나, 현장 교사 및 복지사는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수어가 청각장애 교육 안에서 공식적으로 허용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 저희 학교만 봐도 선생님이 40명 가까이 되는데, 수어로 소통 가능한 분은 8명뿐이에요.” (면담참여자 D)

2025년 교육과정 개편에서도 수어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교육의 질적 보장을 어렵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수학교 도서관에 정식 사서가 배치되지 않는 현실도 청각장애 아동의 독서 접근성과 프로그램 형성에 부진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지적되었다(면담참여자 D). 전문 통역사 배치가 어려운 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수어를 학습해 통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있었다(면담참여자 F).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수어를 배워서 통역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전문 통역사처럼 능숙하지는 않지만, 강의 계획이나

커리큘럼을 미리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면담참여자 F)

셋째, 통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수어 통역은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 수준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고차원적 해석 활동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수어 통역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여, 통역사를 단순 ‘보조 인력’으로 취급하거나 사전 협의 없이 즉흥적으로 투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수어 통역은 의미 단위로 내용을 전달하는 의미론적 통역으로, 독자의 발달 수준과 문화적 이해를 고려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하며, 수어 통역이 단순 번역과 구분되는 언어 재구성 작업임을 강조하였다(면담참여자 E).

“통역해야 하는 자료를 미리 받아보는 것도 단 하루 전일지라도 자료를 보고 많은 학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지금 외주세요.’ 그럼 바로 통역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면담참여자 E)

넷째, 전문 인력비 부담이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강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면담참여자 A).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 프로그램보다 투입 인력과 준비 요소가 많아 필수적 운영 비용이 높다. 수어 통역사의 경우, 2시간 이상의 운영 시 2인 교대가 요구되어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상승하며, 이는 기획 단계부터 예산 부담으로 작용한다.

“2시간 진행될 경우 통역사가 2명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집중도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인데 사람이 느끼기에는 인건비가 갑자기 4배가 된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면담참여자 H)

일부 기관은 수어 통역비를 공모사업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방식은 일회성 공모라는 한계로 인해 지속가능성이 낮다.

“이때도 수어 통역사와 문자통역사를 모두 섭외해야 했기 때문에 단순한 강의 운영보다 훨씬 많은 인력과 준비가 필요했죠. (...) 수어 통역비는 공모사업에서, 문자통역은 복지관 지원을 받아 해결했어요.” (면담참여자 A)

이처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제약으로 인해 운영 범위가 제한되거나 프로그램 수 자체가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면담참여자 F). 다수의 면담참여자들은 수어 통역사 등 핵심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예산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다섯째, 대체자료 제작 예산이다. 면담참여자들은 문자 기반의 인쇄 자료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아동을 위해 수어영상도서 등 맞춤형 대체자료가 필수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의 기획과 제작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현재의 예

산 구조로는 안정적인 자료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히, 수어영상도서 제작은 수어 번역, 감정 표현, 문맥 이해, 아동의 발달 수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건비와 제작 단가가 높아 지속적인 제작이 어렵다고 진단하였다(면담참여자 H). 또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일부 영상 자료에는 제작 형식과 품질의 일관성 부족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매년 제작 업체가 바뀌며 자막 유무, 수어 표현 방식, 시각 구성 등이 제각각이 되는 상황이다.

“제작하는 업체가 매년 달라져서 업체별로 제작 수준과 형식이 달라 일관성이 없고, 어떤 영상은 자막이 있고, 어떤 영상은 자막 없이 수어만 있는 등 다양합니다. 매년 업체가 바뀌면서 품질도 달라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면담참여자 E)

여섯째,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예산 부족이다. 전 연령대와 다양한 이용자층을 포괄적으로 서비스해야 하는 공공도서관의 특성상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이 면담참여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성상 모든 연령대와 다양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다 보니, 지식정보취약계층, 특히 장애인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배정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부분 공모사업 예산으로 외부 재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면담참여자 A)

대부분의 청각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은 의

부 공모사업 예산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등 유관기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였다. 내부 예산만으로는 독립적 기획과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면담참여자 F). 또한, 예산이 일회성 사업 중심으로 책정되거나 비체계적이고 불규칙하게 배분되어, 프로그램 내용의 일관성, 운영 체계성, 대상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산 구조가 단기적, 가시적 성과에 치우쳐 있어, 중장기적 관점의 서비스 설계는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면담참여자 B).

3) 참여자의 인식 및 이해

‘참여자의 인식 및 이해’ 범주의 키워드는 ‘교사 및 부모의 의지에 따른 참여’, ‘장애 인식 부족’, ‘순환근무제’이다. 첫째, 참여의 제한이다. 청각장애 아동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보호자가 아동의 소통 능력이나 재활 상태를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아동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완전히 청력을 상실했거나, 또는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 아이는 조금 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예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겠구나 싶었어요. 결국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거나, 부모님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경우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면담참여자 B)

또한 보호자가 프로그램의 취지와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CODA

가정의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참여 기회를 놓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면담참여자 B). 일부 부모는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아이가 재활이 100% 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으로 (...) 도서관 같은 곳은 일반 이용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간이고, 청각장애 아동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면담참여자 D)

이와 함께 교사의 의지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초등교육과정 내에서 독서활동을 위한 시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교사가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의 도입이나 협력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면담참여자 C).

둘째, 장애 인식의 부족이다. 청각장애는 외형상 확인이 어려운 탓에 언어적, 문화적 복합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다.

“청각장애라는 특성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 선생님들조차도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굳이 독서문화프로그램이 필요할까?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 개선이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참여자 B)

예산이 수반되는 수어 통역 지원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이 ‘효율성’과 ‘비용 절감’만을 기준으

로 접근하는 사례는 제도적 무지와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면담 참여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 “수어 꼭 넣어야 하나요? 너무 비싸요”라는 말을 들은 경험을 공유하며, 예산 판단 이전에 이해 자체가 부족한 게 더 큰 문제라고 진단하였다(면담참여자 D). 또한, 정량 중심의 평가는 청각장애 아동처럼 참여 접근성 자체가 낮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데, 단순 참여자 수로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한다는 건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도서관이나 국공립기관이 ‘효율’만 따지기 시작하면, 취약계층은 언제든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면담참여자 D)

셋째, 순환근무제다. 공공도서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순환근무제는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이지만, 청각장애 아동을 포함한 지식정보취약계층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다. 공모사업이나 외부 협력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경우, 담당자 교체 주기가 빠르고 인수 인계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공도서관 담당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프로그램 지속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 직접 참여했던 사람의 경험과 이해를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면담참여자 E)

청각장애 아동의 경우,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

과 개별적 반응 특성으로 반복적 관찰과 라포 형성이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순환근무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축적된 실천 경험이 단절되고,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의 질적 안정성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담참여자 C). 일부 도서관에서는 기관 규모나 정규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고정 배치가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특수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특수성과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외적 인사정책 또는 장기 운영 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면담참여자 B).

3.2.3 개선점 영역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개선점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1)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범주의 키워드는 ‘접근성 강화’, ‘맞춤형 언어 및 독서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이다. 첫째,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활동이다. 면담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호자와 아동 모두에게 참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호자의 인식과 아동의 필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

족 단위 참여 및 청각장애 가정 간의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기관 주도의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보호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속에서 아동의 반복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면담참여자 E). 한 면담참여자(청각장애 아동의 낮은 도서관 이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 전략을 제안하였다.

“도서관을 이용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습관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참석률에 따른 인센티브 즉, 혜택, 선물 등이 주어져서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담참여자 I)

둘째, 맞춤형 언어 및 독서교육이다. 청각장애 아동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동의 언어 습득 특성과 학습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언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면담참여자들에 의해 강조되었다. 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청각장애 아동에게 한국어는 문자 기반의 제2 언어로 기능하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과 유사한 방식의 언어 구조 재설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면담참여자 D). 아동 간 학습 수준의 차이가 큰 만큼, 개별 맞춤형 가능한 교수 전략과 교육 내용의 다양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표 5> 개선점 영역의 범주별 키워드

범주	키워드
지속가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접근성 강화, 맞춤형 언어 및 독서교육, 제도적 기반 강화
전문가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청각장애인식개선 교육, 전문 인력 양성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	시각 중심 교보재, 수어영상도서 개선
기관 간 협력 강화	담당자 협업 필요, 기관 협력 시너지 창출

“핵심은 감수성, 그러니까 청각장애에 대한 민감도와 이해의 깊이인 것 같아요. (...) 학습 수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면담참여자 E)

“사실 우리가 어떤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려면 교육이 꼭 필요하잖아요. (...) 전 직원이 필수로 참여하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제도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면담참여자 A)

셋째, 제도적 기반 강화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이 단기적 시범 사업이나 공모사업 수준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면담참여자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다. 현행 구조에서는 사업 추진 여부가 도서관 담당자의 의지나 내부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의 연속성과 공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단순히 예산 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운영 지침과 편성 기준이 함께 제도화되어야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출 수 있다는 문제 개선 인식이 공유되었다.

청각장애는 외형상 쉽게 드러나지 않는 특성 때문에, 기관 내에서 다른 장애에 비해 필요성과 긴급성이 낮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를 단순한 청력 손실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습득 구조, 정보 접근의 제약, 소통 문화의 차이 등 구조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면담참여자 B). 아울러, 청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단지 비장애인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거나 적용 대상을 바꾼 형태가 아니며, 접근 방식, 평가 구조, 운영 목표에서 모두 구조적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되었다. 기관의 장애감수성 수준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장애감수성 교육은 평가 기준 개선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예산이 확보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침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어야 전국 어디서든 일관성 있게 장애인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면담참여자 A)

“청각장애인에게 투자되는 비용이나 참여하는 인원수가 비장애인과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기관의 이해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가 적용되어야 질 좋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면담참여자 J)

2) 전문가 양성 및 담당자 교육

‘전문가 양성 및 담당자 교육’ 범주의 키워드는 ‘청각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이다. 첫째, 기관 전반의 장애감수성 개선과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면담을 통해 일관되게 제기되었다. 단기 워크숍이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전 직원 대상의 제도화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되었다.

둘째, 수어 통역사 및 프로그램 강사 등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 구축이다. 면담참여자들은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겪는 운영상의 문제로 수어 통역사 인건비를 지적하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가 반

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단기 계약이나 파견 인력이 아닌, 정규직 형태의 상시 인력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국립기관이 선도적으로 인력 배치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도서관에 확산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면담참여자도 있었다(면담참여자 D). 일부 면담참여자는 수어 통역사와 같은 핵심 인력의 배치를 단순한 행정 운영 지침 수준이 아니라, 「도서관법 시행령」과 같은 상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 수준의 제도화는 인력 배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언급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청각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강사 양성 체계에 주목하였다. 수어와 한국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농인 강사를 양성하는 것이 언어적 접근성은 물론 정체성 형성과 공감 기반의 학습 환경 조성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면담참여자 H, I).

한편, 강사와 통역사뿐 아니라 도서관 내 프로그램 기획자 및 운영 담당자 역시 청각장애 특성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같은 중앙기관이 전문 인력 양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공모사업 시작 전 필수 사전교육 체계 운영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면담참여자 J).

3)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

‘교육자료 및 교보재 개발’ 범주의 키워드는 ‘시각 중심 교보재’와 ‘수어영상도서 개선’이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시각 중심의 교보재를 핵심 학습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면담참여자들은 수업 중 수어와 영상자료를 병행하여 언어 이해를 도왔던 사례를 제시하며(면담참여자 C), 교보재는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니라 시각적 몰입과 언어 습득을 유도하는 중심 도구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수어 통역을 실시간으로 할 때, 이 노란 꽃이 어떤 민들레인지 아이들에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 단순히 그림 삽화에 그치지 않고, 입체북 형태나 (시각적) 교보재로 제작되면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면담참여자 H)

공공도서관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교육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일 교수자료 하나로 5년 이상을 활용하는 등 수어 기반 수업을 위한 교수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이 지적되었다(면담참여자 J).

“그 가이드북 하나로 5년 넘게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경험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표준화된 교육자료나 교보재가 현장에 부족한 상황이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면담참여자 J)

둘째, 수어영상도서의 개선이다. 수어영상도서는 청각장애 아동이 문자나 음성 기반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핵심 언어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담참여자들은 그 원

인으로 콘텐츠의 질적 완성도, 접근 방식, 대상자 분류의 미비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였다. 면담참여자들은 수어영상도서가 독서문화프로그램 내 중심 자료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수어영상도서의 형식과 수준을 통일해야 하고, 청각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자료 접근도 비장애인 교사나 보호자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형식도 제각각이라 사용자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 장애인 당사자만 로그인해서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 비장애인 교사, 부모는 자료에 접근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중학생에게는 너무 쉽거나, 초등학생에게는 너무 어려운 자료가 하나의 ‘청각장애인 대상 수어영상도서’라는 이름으로 섞여 있어요.” (면담참여자 E)

4) 기관 간 협력 강화

‘기관 간 협력 강화’ 범주의 키워드는 ‘담당자 협업 필요’와 ‘기관 협력 시너지 창출’이다.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수어 통역사, 강사, 사서, 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협업하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면담참여자들은 사전 논의 없이 운영되는 경우, 역할 간 기대치 차이와 소통 단절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프로그램 전후로 담당자 간 상시적 협의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면담참여자 A, C, E, H, J).

“프로그램 전후로 협의회를 꼭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직업군이 함께 참여하기 때문

에 각자 목표나 기대치가 다르거나, 보고 느끼는 감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면담참여자 C)

이는 단순한 행정 회의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난이도, 아동 반응, 강사와 통역사 간의 소통 등 운영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함을 뜻한다(면담참여자 E). 청각장애 아동 대상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 분업이 아닌, 사전 조율과 사후 피드백을 통합한 정례적 협의 구조가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점이 면담참여자들로부터 제기되었다.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공공도서관 단독 운영만으로는 예산, 인력, 전문성 등의 측면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이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실질적인 운영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면담참여자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면담참여자 A). 한 면담참여자는 이러한 협업을 통해, 복지사는 정서적 돌봄과 생활 밀착형 지원에서, 사서는 언어 중심의 독서교육 콘텐츠 구성에서 각각의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설명하였다(면담참여자 B).

“책을 중심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도서관 사서 선생님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면담참여자 F)

한 면담참여자는 도서관이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 내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다양한 독서문화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면담참여자 C). 이러한 협업은 단지 자원 공유에 그치지 않고,

청각장애 아동의 접근성과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식으로도 작용한다.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학교 국어 선생님과 협력해서 방과 후 수업처럼 꾸려서 진행했어요. 단독으로 진행하고자 하면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학교와 함께하니 참여율이 높아지더라고요.” (면담참여자 G)

3.3 소결

청각장애 아동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인식, 문제점,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주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에게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순한 독서 지원을 넘어, 문해력 향상과 정서적 소통, 사회적 상호작용 등 다양한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문화복지서비스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든 면담참여자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아동기 독서 경험이 평생의 학습 역량과 정보 접근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기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병행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둘째,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적·인지적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아동에게 한국어는 제2언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독서활동이 상당한 인지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 다수 면담자에 의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수어 기반의 시각자료, 이야기 중심 활동, 감정 표현을 포함한 입체적 접근이 병행될 때 학습 효과가 높아진다는 실증적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프로그램 운영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제기된 어려움은 전문 인력 부족과 예산 한계였다. 특히 수어 통역사와 문자통역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의 질과 지속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관련해 수어 통역사의 공공기관 상시 인력 배치, 청각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강사 양성, 담당자 대상 사전 교육 체계화 등이 구체적인 인력 개선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넷째,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식과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실제 참여는 부모나 교사의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아동의 소통 수준이 낮거나 CODA 가정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정보 접근과 이해 자체가 어려워 참여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존재하였다. 또한 담당 사서의 순환근무제로 인한 서비스 일관성 저하, 공공도서관 내부의 장애 인식 부족 등도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운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실질적 확산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도서관-학교-복지관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면담참여자들은 담당자 회의 정례화, 프로그램 기획 초기 협업 구조 설계, 공공도서관의 자문·허브 역할 제도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이 구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어영상도서와 시각교보재의 개선, 교육자료의 표준화 보급, 접근권 확대 등은 현장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핵심 요소로 지목되었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청각장애 아동 독서

문화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 참여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인식 개선 및 정보 접근 구조 마련,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와 담당자 역량 내재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 활성화 방안

본 장에서는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제도적 측면과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4.1 제도적 측면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이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면담 연구에서 논하였듯이,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춘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 체계와 행정적 기반이 필수적이다. 다음에서는 ‘청각장애인 서비스 예산의 확보’, ‘수어 통역사 및 전문 인력의 배치’,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제도화’, ‘담당자 배치 및 인수인계 체계 구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내 장애인 서비스 예산 배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면담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의 지속적 운영은 안정적 예산 확보로부터 시작한다.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대

부분 국립장애인도서관의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연속성과 체계적인 기획이 어려운 구조다. 공모사업은 연간 단위로 운영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공공도서관이 정기 계획으로 수립하기에는 불안정성이 크다. 또한, 공공도서관은 장애인 이용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비장애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제한된 예산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에 충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서비스 예산 배정은 반드시 구비와 시비를 일정 비율로 매칭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지침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도서관 자체 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장애인 서비스가 다른 사업에 밀리지 않고 필수 예산 항목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수어 통역사 및 청각장애인 전문 인력의 배치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수어 통역사는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핵심 인력이지만, 대부분 행사성 계약이나 외부 파견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앞서 면담연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 논의에서도 수어 통역사 인건비 부담과 단기 파견 운영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인력의 상시 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명시된 사서의 배치기준과 연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에 수어 통역사를 포함한 ‘장애인서비스 전담 인력’을 최소 1인 이상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청각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정기화되어

야 한다. 앞서 면담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면담참여자 다수는 도서관 내부 구성원의 청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청각장애는 외형상 확인이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도서관 내부에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각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장애인 대상 문화, 교육,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하는 방식으로, 공모사업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집합 교육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 수어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 언어습득 구조, 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교육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

넷째, 담당자 배치와 인수인계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면담 결과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 참여자 라포 형성을 위해 동일 담당자의 지속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순환근무제로 인해 매년 담당자가 바뀌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효과가 저하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동일 담당자 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예외 조항을 마련하거나, 동일한 담당자의 지속 배치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의 인수인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각 프로그램 종료 후 운영 과정, 주요 이슈, 대상자 반응, 개선점 등을 문서화하

여 후임 담당자가 쉽게 참고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반영할 수 있는 표준 운영 인수인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지원을 받는 시범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4.2 서비스 측면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서비스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의 접근 방식 또한 정교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면담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통한 참여 아동의 변화, 만족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과 방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요구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측면에서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시청각 중심의 콘텐츠 및 교보재 개발', '수어영상도서의 품질개선과 접근성 확대', '보호자 신뢰 형성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운영 주체 간 협의 및 피드백 시스템 마련' 등 5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 청각장애 아동은 사용하는 소통 방식이 수어 중심인지 구어 중심인지에 따라 학습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범위와 독서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개인마다 크게 다르다. 따라서 단일화된 커리큘럼으로는 청각장애 아동 개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비장애 아동을 기준으로 구성된 일반적 독서 활동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청각장애 아동의 흥미와 지속적 참여를 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 독서문화프로

그림은 시각 정보에 기반한 책읽기, 수어 스토리텔링, 그림책을 활용한 감정 표현 활동 등 청각장애 아동의 특성에 적합한 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시청각 콘텐츠와 교보재의 체계적 개발이 요구된다. 청각장애 아동은 청각적 정보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에, 언어 이해와 개념 습득 과정에서 시각 중심의 자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면담참여자들은 단순한 문자 텍스트 중심의 수업보다는 그림, 영상, 실물 자료 등 다양한 감각을 활용한 학습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공공도서관은 청각장애 아동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어 통역이 포함된 영상자료, 시청각 워크북, 감각 중심 교보재 등 표준화된 교육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어영상도서의 품질개선과 접근성 확대가 시급하다. 현재 국립장애인도서관 등에서 제공되는 수어영상도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령대별 난이도나 주제별 체계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아동의 발달 수준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적절한 자료를 선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초등 저학년과 중학생이 동일한 수어 영상 자료를 접하는 상황은 교육적 효과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학습 흥미를 저해할 수 있다. 앞서 면담연구에 따르면 수어영상도서 제작을 맡는 외부 용역 업체가 매년 변경되어 품질이 일정하지 않고, 각 업체가 적용하는 수어 번역 방식에도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수업 설계와 교육 활용의 유연성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어영상도서는 연령, 주제, 난이도 등의 기준에 따라 세

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수어 번역 품질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어영상도서 제작 시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검수 절차와 통일된 번역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농인 당사자 및 수어교육 전문가가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재의 수어영상도서 시스템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로그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도서관 사서나 교사, 보호자 등 교육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주체가 자료에 접근하거나 미리 검토하기가 어렵다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이에, 교사, 보호자, 도서관 담당자 등 교육 관계자가 교육적 목적으로 사전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 권한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보호자 신뢰 형성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정보 접근이나 참여 여부 결정이 보호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많은 청각장애 아동이 비장애인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 보호자가 수어 및 농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자녀의 참여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거나, 낯선 환경에서 배제를 우려해 프로그램 참여를 망설이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참여 기준과 목적, 구성 방향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보호자에게 자녀의 참여가 긍정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신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의체 구성과 피드백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청각장애 아동 대상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수어 통역사, 강사, 사서, 특수교사 등 각기 다른 역할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협업해야 하는 다직종 협력 모델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도서관, 복지기관, 특수

학교 등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 일정 조정, 대상 아동 특성에 대한 정보 교환, 통역 및 보조 인력의 활용 방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 면담연구에서 살펴봤듯이, 청각장애 아동 프로그램은 단순한 참여 인원이나 회차 수 같은 정량 지표만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공통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참여자 몰입도, 의사소통의 질, 감정 반응 등 정성적 요소가 프로그램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 기준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평가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해 회의록, 관찰 일지, 운영일지 기록,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보호자 또는 당사자 면담, 행동 평가도구 등을 활용하며, 운영자 간 협의 과정에서 도출된 평가와 피드백이 프로그램 평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과 방식을 표준 운영 지침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맺는 글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은

단순한 문화 참여의 기회를 넘어, 언어 발달과 정서적 안정, 사회적 통합을 지원하는 핵심적 교육 문화 수단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전문가 면담을 통해 확인한 공공도서관 현장은 이러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에 재정, 인력, 전문성 등의 기반이 미비하였다. 비장애 아동을 기준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틀, 상시화되지 않은 수어 통역 인력 운영, 체계화되지 않은 시청각 콘텐츠, 정량 중심의 성과 평가체계 등은 청각장애 아동에게 적합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요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공공도서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망라한 모든 이용자들에게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기회와 환경을 지원하여야 한다. 하지만, 공공도서관의 이러한 기본적 책무가 청각장애 아동에게 충분히 수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각장애 아동의 언어·문화적 특성 및 독서 특성 분석과 현장 전문가 면담을 통해 정책적 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향후, 본 연구가 논의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 제도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사구시적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창욱, 원성욱, 김호연, 이정자, 한기열 (2012). 청각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모델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강창욱, 원성욱, 허일, 김혜주 (2013).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점도서관 운영모델 개발. 국립장애인도서관.
- 고은 (2017).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4-2028).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a). 2021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현황조사.
- 국립장애인도서관 (2022b). 2022년 장애인 독서활동 실태조사.
- 국립중앙도서관 (2008). 청각장애인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20446호.
- 김미옥, 이미선 (2013).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경험. 한국사회복지학, 65(2), 155-177.
<https://doi.org/10.20970/kasw.2013.65.2.007>
- 김승원, 노성민, 김희성, 이수연, 이경민 (2016). 장애포괄적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 김자경, 강혜진, 구자현 (2011). 청각장애 고등학생의 공감 특성. 특수교육저널, 12(2), 141-156.
- 김정규 (2008). 구연 동화를 통한 수어지도가 청각장애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김판준 (2022).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분야의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51-71.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051>
-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33호.
- 도서관법. 법률 제19592호.
- 독서문화진흥법. 법률 제19794호.
- 박상희, 권영주 (2003). 청각장애 아동의 청능발달과 언어발달간의 상관관계 연구. 음성과학, 10(4), 255-261.
- 박소현, 방정화 (2011). 인공와우 착용 아동의 작업기억, 문장이해력과 문장인지도 간의 관계. 청능재활, 7(1), 40-50.
- 배형일, 최성규 (2010). 청각장애학생의 독서능력 신장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2(2), 293-308.
<https://doi.org/10.21075/kacsn.2010.12.2.293>
- 송혜경 (2009). 균형 있는 문해 프로그램이 청각장애아동의 문법형태소 사용 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 아동복지법. 법률 제19555호.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20380호.
- 이광열, 최상배, 안성우, 서유경, 신영주 (2006). 청각장애 학생의 인지과정을 설명하는 변인 연구: PASS 모형의 관점에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4), 325-350.
- 이규식, 권순황 (2001). 농문화 접근 태도에 따른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지원과 언어 선호 연구. 난청과 언어장애, 24(1), 57-71.
- 이미숙, 구신실, 노진아, 박경옥, 서선지 (2016). 예비교사를 위한 특수교육학 개론(2판). 서울: 학지사.
- 이수상, 김수빈, 김나은 (2024). 국내 공공도서관 프로그램의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정독도서관을 중심

- 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29-53.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이준우, 김연신 (2011a). 데프 앤 데프. 파주: 나남.
- 이준우, 김연신 (2011b). 청각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정보격차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5(4), 159-182.
- 이준우, 박종미 (2009). 청각장애인의 지식정보서비스 이용 욕구와 사회복지실천 과제. 재활복지, 13(2), 257-285.
- 이준우, 이현아 (2017). 청각장애인의 위험 판단을 위한 소리 정보, 인지 조건과 행동 반응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8, 149-180. <https://doi.org/10.22779/kadw.2017.38.38.149>
- 이지아, 최소영 (2017). 청각장애 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의사소통 회복 전략에 따른 문장 이해 특성.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2(2), 391-404. <https://doi.org/10.12963/csd.1633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284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434호.
- 조형용, 신현호, 이선화, 송영준 (2005). 청각장애학교 초등부 독서지도 프로그램. 국립특수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69호.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20566호.
- 최성규 (2000).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이 청각장애아의 수업 태도 함양에 미치는 효과. 초등특수교육연구, 2(1), 109-123.
- 홍주원 (2016). 독서를 활용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청각장애학생의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장애인 고등교육 연구, 2(2), 37-55.
- IFLA (2024). Guidelines for Making Libraries Accessibl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FLA Equitable and Accessible Library Services Secti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Invested or Funded Institutions. No. 20869.
- Bae, Hyungil & Choi, Sungkyu (2010). The study on reading strategies and supports to improve reading ability for hearing impaired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2(2), 293-308. <https://doi.org/10.21075/kacsn.2010.12.2.293>
- Child Welfare Act. No. 19555.
- Cho, Hyung-yong, Shin, Hyun-ho, Lee, Sun-hwa, & Song, Young-jun (2005). Reading guidance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 Choi, Sung-kyu (2000). The effectiveness of provid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y with picture on learning attitudes for the children with hearing impaired.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2(1), 109-123.
- Elementary and Saecndary Education Act. No. 20566.
- Enfoncement Decree of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idential Decree No. 35284.
- Enfoncement Decree of Act on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sidential Decree No. 35434.
- Enfoncement Decree of Library Act. Presidential Decree No. 34533.
- Hong, Ju-won (2016). The effects of a reading-based communication program on the empathic abilities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Higher Education and Post-Secondary Education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2(2), 37-55.
- Infant Care Act. No. 20380.
- Kang, Chang Wook, Won, Seong-ok, Kim, Ho-yeon, Lee, Jung-ja, & Han, Ki-yeol (2012).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Cultural Program Model for the Promotion of Library Use for the Deaf.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Kang, Chang-wook, Won, Seong-ok, Heo, Il, & Kim, Hye-joo (2013). Development of Base Library Operation Model for the Deaf.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 Kim, Jakyoung, Kang, Hye-Jin, & Gu, Ja-Hyun (2011). The characteristics of empathy for high school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12(2), 141-156.
- Kim, Jung-gyu (2008). The Effects on Sign Language Instruction with Orally Narrated Stories in Vocabulary Improvement for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 Kim, Mi-Ok & Lee, Miseon (2013).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the deaf.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2), 155-177.
<https://doi.org/10.20970/kasw.2013.65.2.007>
- Kim, Pan Jun (2022). Research trends and tasks in the field of public library program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51-71.
<https://doi.org/10.4275/KSLIS.2022.56.4.051>
- Kim, Seung-wan, Noh, Sung-min, Kim, Hoe-sung, Lee, Soo-yeon, & Lee, Kyung-min (2016).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Disaster Crisis Management Manual for Disabilities: Focusing on the Deaf. Seoul: Korea's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 Ko, Eun (2017). *Deaf Children's Education*. Seoul: Hakjisa.
- Lee, Ji-ah & Choi, So-young (2017). Repair strategies for hearing impaired adolescents based on sentence comprehension according to language ability.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2(2), 391-404. <https://doi.org/10.12963/csd.16339>
- Lee, Jun-woo & Bach, Jong-mie (2009). The needs on knowledge information service use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and tasks of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3(2), 257-285.
- Lee, Jun-woo & Kim, Youn-sin (2011a). *Deaf and Deaf*. Paju: Nanam.
- Lee, Jun-woo & Kim, Youn-sin (2011b).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on the occurrence of information gap-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literac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4), 159-182.
- Lee, Jun-woo & Lee, Hyuna (2017). A study on the sound Information, cognitive condition and behavioral response for risk assessment of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8, 149-180. <https://doi.org/10.22779/kadw.2017.38.38.149>
- Lee, Kwang-ryeol, Choi, Sang-bae, Ahn, Seung-woo, Seo, Yoo-kyung, & Shin, Young-ju (2006). A study on the variables explaining the cognitive processes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from a point of view of PASS Model.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45(4), 325-350.
- Lee, Mi-sook, Koo, Shin-sil, Noh, Jin-ah, Park, Kyung-ok, & Seo, Seon-ji (2016).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for Pre-service Teachers (2nd ed.)*, Seoul: Hakjisa.
- Lee, Soosang, Kim, Subin, & Kim, Naeun (2024). A study on content analysis of domestic public library programs: focusing on Jeongdok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29-53.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29>
- Library Act. No. 19592.
-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No. 20446.
- National Library Committee (2024). *4th Library Development Comprehensive Plan (2024-2028)*.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2a). *Survey on the Status of Service for the Disabled in Libraries in 2021*.
- National Library for the Disabled (2022b). *2022 Survey on Reading Activities for the Disabled*.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8). *A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to Close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the Deaf*.
- Park, Sang-Hee & Kwon, Young-Ju (2003). The study for correlation among auditory development and language development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Speech Science*, 10(4),

255-261.

Park, Sohyun & Bahng, Junghwa (2011). The relation among working memory, sentence comprehension and sentence recognition in children with a cochlear implant. *Audiology and Speech Research*, 7(1), 40-50.

Reading Culture Promotion Act, No. 19794.

Rhee, Kyu-Shik & Kwon, Soon-Hwang (2001). The attitude of educational setting and language use need on the degree of deaf culture awareness. *Communication Disorder*, 24(1), 57-71.

Song, Hye-Gyoung (2009). The Effectson Balanced Literacy Program to Use Ability of Morpheme for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Ph.D. thesis, Daegu University.

